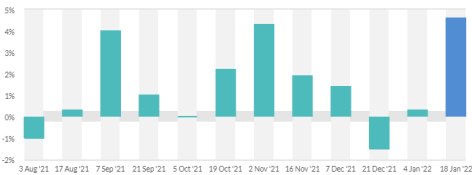




[가격동향] GDT 유제품 가격 8년 만에 최고치

- 전장대비 4.6% 상승...서유럽 수출가격도 상승세 이어가

Change in GDT Price Index



Summary of Results

Number of Winning Bidders	111	Number of participating bidders	167
Number of Bidding Rounds	15	Quantity sold (MT)	30,644
Duration of Trading Event (hours:mins)	2:05	Minimum Supply (MT)	28,270
Maximum Supply (MT)	33,205		

지난 1월 18일 실시된 제300차 GDT(세계유제품경매)에서 유제품 가격이 2주전 대비 4.6% 상승하며 2014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지수 또한 1,397포인트로 전장대비 6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2주전 보합세를 보인 전지분유가 전장대비 5.6% 오른 톤당 4,082달러(약 486만원)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버터와 탈지분유는 5% 상승하며, 버터는 톤당 6,158달러(약 733만원), 탈지분유는 톤당 3,963달러(약 472만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다치즈도 톤당 5,546달러(약 660만원)로 전장대비 1.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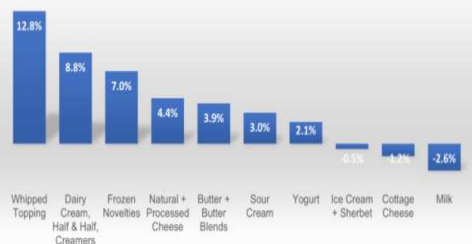
업계관계자는 생산비 상승으로 뉴질랜드를 비롯한 주요 원유생산국의 생산량이 주춤한 가운데 기상 악화까지 이어지며 생산량이 계속해서 감소함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 출처 : globaldairytrade.info, 1월 18일 >

[소비동향] 美, 코로나 악재 불구 유제품 소비량 증가세

- 1인당 유제품 소비량 1960년 이후 최고치 기록

Dairy Product Retail Volume 2021 vs. 2019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악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유제품 소비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낙농가연합(NMPF)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빠른 회복력을 보이며 유제품 수요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1인당 유제품 소비량은 196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해 유제품 수출도 기록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즈, 버터, 요거트 및 사워크림 등 유제품 소매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 반면 시유 판매량은 감소했으나 지난 2년간 수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관계자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식품으로 자리매김하며 소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출처 : hoosieragtoday.com, 1월 18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